

시조 太師公 주벽 경주 운곡서원 춘향

3월 초정일, 4월 17일 축초丑初 봉행



▲ 심야의 본행례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운곡서원의 정의당에서 집사자가 파록되고 있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사라곡沙羅谷 또는 운곡雲谷은 상고 신라 시대 밀곡사密谷寺가 있던 자리로서 작은 절경이 숨어 있는 비곡동천秘谷洞天으로 옛적에 밀곡으로도 불린 바 있는 곳이다. 여기에 소재하는 운곡서원雲谷書院 경현사景賢祠에는 우리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太師公이 주벽主壁으로, 동위東位에는 좌운공과 시조후 19세 죽림공竹林公 휘 산해山海가 곡배曲配되고 서위西位에는 좌운공과 시조후 23세 귀봉공龜峰公 휘 덕린德麟이 또한 곡배되어 있다. 이곳의 세일사歲一事, 매년 한 차례 지내는 행사의 상향제常享祭가 봄철

춘계春季의 정일定日인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인데 금년은 음력으로 3월 4일 정유일丁酉日, 양력으로는 4월 17일 토요일이 되어 행사되었다.

경주의 유림에서 주관하는 이곳의 향사는 아직도 옛 전통과 절목을 대부분 변개하는 일 없이 고수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이 없었다. 현관 이하 제생諸生이 전일인 16일 오전 10시에 입재入齋하여 오료午饗(점심) 후 집사자파록執事者派錄이라 하는 분방례分榜禮를 행하고 이어 희생犧牲으로 쓸 동물의 충실을 감사하는 감생례鑑牲禮를 행한 다음 현관 이하가 사당 뜰로 나아가



▲ 서원의 동쪽 담밖에서 감생례를 행하고 있다.



▲ 사당 경덕사 뜰에서의 사축례

축문을 옮겨 쓰는 사축례寫祝禮를 마치고 나와 강당에 열좌하여 행공상行公床을 받는 등의 절목을 온전히 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일 평명平明의 행사를 마친 다음에는 석식夕食과 야화夜火로 미음을 들며 담화로 대기하다가 자정이 지나 당일, 즉 17일의 축시초丑時初인 새벽 1시가 되어 심야행사로 본향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향사의 집사자는 3현관과 축관·집례가 다 향중의 유림인사로서 타성인이고 제집사와 일반 제관은 거개가 권성후손인데 인근 경주·포항지역인 외에 부산에서 4인, 대구에서 4인, 서울에서 3인의 후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안강과 경주 지역 안동권씨 청년회원 등은 각자의 생업 관계로 전일 일몰 후에 입재하여 축시 향례를 마친 다음에는 또한 익일의 각자 일과 관계로 아침 음복飮福을 껴하고 미명에 모두들 돌아가기 분주하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곳 향사 참여가 워낙 원거리여서 여의치가 많은데 이번 일행에는 추밀공파 화산부원군중회의 권진택權晉澤 회장과 권정택權貞澤 부회장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직일直日과 진설陳設로 각기 행공하였다. 이날에 분방된 전체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 초현관 : 이동근李東根
- 아현관 : 남호중南浩鍾
- 중현관 : 이두환李斗煥
- 대축대祝 : 이상인李相寅
- 찬자贊者 : 홍성학洪性學
- 알자謁者 : 권용호權容浩
- 찬인贊引 : 권칠근權七根·권혁달權赫達
- 판진설判陳設 : 권혁문權赫文·권주혁權珠赫·권혁근權赫根·권원술權元述·권정택權貞澤
- 사준司尊 : 손동호孫東浩
- 봉로奉爐 : 권순중權純宗·권영탁權寧卓
- 봉향奉香 : 권삼랑權三郎·권오삼權五三
- 봉작奉爵 : 권순봉權純鳳·권태현權泰賢
- 진작奠爵 : 권기제權奇濟·권상수權相壽
- 장생掌牲 : 권오군權五群·권오훈權五焄
- 장찬掌饌 : 권혁준權赫俊·권혁광權赫光
- 관세위 洗位 : 권혁인權赫寅
- 학생學生 : 권재호權在浩
- 직일直日 : 권진택權晉澤
- 원原 : 공사원公事員 권혁식權赫植·권만택權萬宅, 조사曹司 권혁중權赫宗·권혁근權赫根

한편 운곡서원의 경내는 실

양촌 문충공 권근선생 영정

국가표준영정 지정 직전단계의 완성된 모습



양촌선생기념사업회陽村先生記念事業會와 안동권씨중보사에서 2009년의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 선생 서세 600주년을 기하여 저간에 그 국가지정표준영정國家指定標準影幀을 제작하는 사업 추진을 발기하고, 사계의 명장名匠 동강궁중회화연구소東江宮中繪畵研究所 장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 화백과 제휴하는 한편 그 기금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그리하여 2009년 7월부터 관계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상영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0년 2월 3일 제6차의 심의를 거쳐 초안이 소묘素描 상태로 통과 확정되고 이를 비단바탕에 옮겨 채색을 함으로써 영정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영정은 국가표준영정으로서의 지정 절

차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양촌 문충공의 후손 중중단체에서 이 표준영정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이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에 접수되어 지정이 보류되었다. 그러면서 안동권문 전체에 이 사업이 모종 불순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보는 시각으로 지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바 되어, 이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 누가 현선조께 끼칠 우려가 크므로 양촌선생기념사업회와 안동권씨중보사에서는 현 단계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키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완성된 상태의 이 영정은 권오창 화백의 동강궁중회화연구소에 보관하고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에 선후책을 의논하기로 하였다.

화로 소실되었던 유연정悠然亭의 직사直舍를 관비 문화재유지보수 예산으로 말끔히 중건하였고 서원 외삼문 앞의 작은 돈대도 양쪽으로 계단 등반로를 신설하고 돈대에는 노천정자와도 같은 좌혈처坐歇處를 베풀었으며 특히 국도로부터의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함에 15억원의 도비를 들여 완공하여 경계를 일신하고 있었는데 두 곳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교량 2개처를 새로 놓는 데 들

어간 예산의 비중이 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함에는 전임 권혁광權赫光 유사 등의 노고가 컸고 신임 권혁무權赫武 유사는 운곡서원의 연혁개요와 안내자료를 인터넷에 띄워 놓는 한편 이를 브로셔로도 제작하여 평소 봉심자와 참제원에게 배포하고 있으면서 장차 원지院誌도 본격적인 책자로 편찬할 계획이라 하였다.

<사진·글 권오焄>